

편지 한통 200만원·상봉 700만원 들었지만 “그만큼 절실히 만나고 싶었다”

이산상봉 기다리는 김성연용

**홍남철수 때 혈혈단신 남한행
1998년 동생 7명 소식 확인
중개인 통해 중서 두차례 상봉
이번엔 금강산서 꼭 만났으면**

“보고 싶은 오빠에게. 오빠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소식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편지를 눈물 질만 기쁨 절반으로 써요. 성환 오빠는 2006년 오빠를 만난 후 양덕에 있는 아들을 따라갔는데 그 후 소식은 모르겠어요. 선옥이는 오빠 소식만 듣고도 너무 좋아 경충경충 뛰어요. 오래 사셔서 우리 꼭 만나요! 꼭. 내가 중국에서 나올 때 오빠가 준 반지 7개는 중국 사람이 돈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고서는 하나도 주지 않아서 울면서 나왔어요.”(동생 증육이가 2013년 11월3일 평양에서)

다음달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 명단 추첨이 있던 9일 오후 대한적십자사의 전화를 손꼽아 기다리던 김성연(83) 할아버지는 이북에 있는 동생들이 보낸 편지를 뒤적거리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지난 1998년 편지를 통해 처음으로 이북에 있던 동생 7명의 소식을 확인했다. 부모는 1988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김 할아버지가 꺼낸 아버지의 사진에서는 그의 얼굴이 오버랩되는 듯 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었던 김 할아버지는 1950년 국군에 포로로 붙잡힌 뒤 다시 국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했다. 그리고 홍남철수 때 고향인 함경남도 정평에 부모와 7명의 동생을 나누고 혈혈단신으로 남한 땅을 밟았다.

편지왕래는 함께 일을 하던 중국인에게 “고향에 편지 한 통 보내고 싶다”고 말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 사람이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두달 만에 도착했다.

처음 편지를 받고서는 수차례 읽고,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우표 가격 정도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비용이 올라 한통을 보내고 받으려면 200만원 정도 든다”고 말했다.

몇 차례 편지를 주고 받던 그는 뜻내 동생이 만나고 싶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중국 공안 출신 중개인을 통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 추첨이 진행된 9일 김성연(83) 할아버지가 중국을 통해 이북에 있는 동생들과 주고 받은 편지와 사진을 보며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해 주선을 했고, 7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지난 2004년 압록강 상류인 중국 장백진에서 여섯째 동생 증육씨를 만났다. 통일부에 신고를 하고 일부 지원금도 받았다.

54년 만에 만난 동생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장백진의 한 가정집에서만 보낸 2박3일은 너무도 짧았다. 동생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지 못한 것이 여간 마음에 걸려 돌아오는 비행기와 버스에서 서러움이 북받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여동생이 8개월 뒤 보내온 편지에는 김 할아버지가 그토록 밟아보고 싶은 고향땅 소식도 담겨 있었다.

“어머니·아버지는 늘 앓으면 우리 동네, 오빠 소식을 기다렸지요. 산소에서 고향땅 흙을 가져왔어요. 언제면

고향땅 흙을 오빠 손에 다시 쥐어 줄 수 있을까.”(2004년 11월)

이듬해인 2005년에는 넷째 남동생을 만났다. 이후 김 할아버지는 ‘이산가족상봉추진회’를 꾸려 강원도와 제주 등 지역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중개인을 통해서 만남을 주선한 뒤에 통일부에 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준다”며 “그때만 해도 700만~1000만원의 돈을 들여서라도 만날 수 있어 좋았는데 이명박정부 이후부터는 그 통로조차 막 막혀버려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고향땅도 밟고, 부모님 묘지도 가보고 싶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서 고향땅을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돌고래호 5일만에 선체 인양... 구멍난 곳 발견

**파손 이유 정확한 조사 필요
하추자도 신앙향으로 옮겨**

전북된 뉴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선체가 사고 5일 만인 9일 인양됐다. 인양작업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150t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을 실은 바지선(동아 150호·480t)이 추자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진행됐다. 크레인 바지선은 오전 6시 20분께 제주 애월항을 출항, 오후 1시께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파도가 높게 이는 등 해상 날씨가 좋지 않아 3시간가량 늦어졌다.

인양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우선 해군 해난구조대(SSU) 등이 추자도 청도에 전복된 돌고래호 선체의 결박을 풀고 체인을 감아 크레인에 연결했다. 크레인이 체인을 감아올리자 바다에 잠겨 있던 돌고래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보이며 선체에서 바닷물이 일시에 빠져들었다. 돌고래호 선수와 가운데 측면에는 무언가에 쓸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졌고 구멍이 난 부분도 있었다. 또 선미 오른쪽 일부(1~2m 가량)가 파손된 것도 육안으로 확인됐다.



9일 오후 제주 추자도 인근 청도 해상에서 150t을 들어올릴 수 있는 480t급 크레인 바지선 동아150호가 뉴시어선 돌고래호(9.77t, 해남 선적)를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표류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것인지, 인양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등 파손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돌고래호는 크레인에 의해 뒤집혀진 채 바지선 위에 내려졌고 해경과 인양업체 직원 등은 파란색 방수포를 선체를 덮었다. 돌고래호 선체를 실은 바지선은 바로 추자도에 있는 신앙향으로 이동했다. 해경은 돌고래호 선체를 정밀 감식, 불법 개조이나 선체구조변경 등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실종자 가족 거처 해남서 제주로 옮기기로

**사고 수습 미온 대처 항의
유가족들은 별도 장례절차**

돌고래호 실종자 가족들이 거처를 해남에서 제주로 옮기기로 했다. 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에 미온적인 정부와 해경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유가족들은 별도로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돌고래호 실종·사망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돌고래호 사고 연구자 대기

소가 마련된 해남군 다목적생활체육관에서 회의를 열어 실종자 가족들의 거처를 해남군 다목적생활체육관에서 사고 수습주체인 제주해경경비안전본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최영택 가족대책위원장은 “실종자 가족들도 사망자 가족들이 있는 제주로 옮겨달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가족들이 제주에 있어야 했다. 그랬다면 해경이 빨리 나섰을 것이고 문제 해결도 잘 됐을 것”이라며 “해경이 해남에 시신

을 안치하고 대기소를 마련한 이유가 있었다. 여기에 차려놓으니 해경들을 아무도 만날 수도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당초 유가족들도 시신과 함께 제주로 옮겨가기를 원했으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점을 감안해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해역에 간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해남으로 돌아오면 합류, 10일 오전 안도에서 배편으로 제주로 옮겨갈 예정이다. 이들은 제주로 옮겨간 뒤 사고 수습 중인 제주해경경비안전본부를 방문, 신속한 수색과 사고 수습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서 교통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

경찰 치고 도주한 30대는 자수

교통 경찰이 술에 취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광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9일 새벽 4시11분께 광주서 서구 금호동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이모(32)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정모(53)씨의 마티즈 승합차를 들이쳤다. 이 사고로 정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동승자 안모(여·39)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이씨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8일 밤 10시50분께 광산구 신창동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2.2km 부근에서는 광주북부경찰 소속 엄모(36) 경사가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주행 중이던 이모(2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이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엄 경사는 5시간 뒤인 9일 새벽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자수했다. 음주측정결과 엄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다.

같은 날 밤 서구 금호동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는 정모(30)씨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경민기자 kki@

“동물보호소가 되레 동물 학대”



○~유기된 동물들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광주시가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광주 동물보호소가 되레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다며 광주지역 동물보호단체가 반발.

○9일 동물 학대 근절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동물보호모임’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지검에 광주동물보호소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전남대동물의학연구소를 노동법과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이 단체는 “광주동물보호소에는 수의사가 있는데도 의뢰자들이 필요한 입소 동물에겐 기본적인 치료와 처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등 동물보호법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 /김경민기자 kki@

회사 사정상 급매, 펜션·전원주택단지 **최고장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 가능**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능
- **리모델링 후(1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과거 펜션/식당/박물관 운영함)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낙찰 - 14억 9500만원(7명 응찰/2등 - 14억 9100만원)**
등기비 - 7000만원
명도비 - 2000만원(5명)
기초공사 - 3000만원(운석공사/벌목 등)
기타 - 1500만원(대청소 등)
총 - 16억 3000만원
- **급매 - 17억 5000만원**
대출 - 12억 5000만원(2.1%, 월 219만원)
- **실제 인수금액 - 5억원**
조건 - 9월 23일까지 계약 후 10월 23일까지 완불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1년 후 대출 20억정도 가능
조정없음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산총액	부채총액	유동자산	유동부채
2014년	2,783,538,410원	3,000,000원	68,119,000원	1,339,700,000원	1,409,497,000원	1,339,700,000원	1,409,497,000원
2013년	2,783,538,410원	3,000,000원	68,119,000원	1,339,700,000원	1,409,497,000원	1,339,700,000원	1,409,497,000원
2012년	2,783,538,410원	3,000,000원	68,119,000원	1,339,700,000원	1,409,497,000원	1,339,700,000원	1,409,497,000원
2011년	2,783,538,410원	3,000,000원	68,119,000원	1,339,700,000원	1,409,497,000원	1,339,700,000원	1,409,497,000원
2010년	2,783,538,410원	3,000,000원	68,119,000원	1,339,700,000원	1,409,497,000원	1,339,700,000원	1,409,497,000원